

삼성, 3분기 HBM4 매출 3배 확대… 美 테일러 팹2 연말 착공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 기록
하반기 HBM4 매출 비중 60% 상회
데이터센터 5곳과 장기계약 완료
추가 대형 고객 5곳 협상 막바지
2나노 수주 과제 전년비 2배 전망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30일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기준으로는 HBM4 매출이 당 사 HBM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서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체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

D램 시장 점유율과 맞먹는 수준의 HBM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균형 잡힌 D램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에 매출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

성했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AI 서버 중심의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사업은 HBM4와 HBM4E를 비롯해 DDR5, SOCAMM2, 엔터프라이즈 SSD(eSSD) 판매를 확대하고, AI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모바일 공정 양산과 AI-HPC 고객 확대에 집중하고, 시스템LSI는 차세대 플래그십 모바일 SoC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8.6세대 IT OLED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MX사업은 AI 경험을 강화한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시설투자도 AI 중심으로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시설투자에 총 16조8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에만 15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메모리는 첨단 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대를,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HBM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샘플링한 HBM4E 기술력과 2027년 HBM 공급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들과 계획대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급 부족이 중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AI 토론투 급증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AI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대형 고객들로부터 다년 공급 계약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공급계약(LTA)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주요 5대 글로벌 테

이터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추가 5개 대형 고객들과도 협상 완료 단계에 있다”며 “당사는 전체 캐파의 60~70% 수준에서 장기 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5년을 기본으로 하는 다년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했다.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나노 수주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테일러 팹2 역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4나노에 대한 고객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팹 확보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하만 등 선전… 가전 수익성 뒷걸음

>> 1면 ‘삼전 영업이익…’서 계속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수요와 신규 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고, 생활가전(DA)은 에어컨 성수기 효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이익은 감소했다.

하만은 전장 사업과 개인용 오디오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 4조6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모바일 패널과 게이밍 모니터용 패널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7조5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는 HBM4·HBM4E, DDR5, SOCAMM2, eSSD 판매를 확대하고, 파운드리는 2나노 2세대 모바일 공정 양산과 AI·고성능컴퓨팅(HPC) 수요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제조업 심리 4년1개월래 최고 中企·비제조업은 기준선 아래

한은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반도체·방산·조선 신규수주 확대
수출기업 107.5 직전 고점 회복
내수기업 3년1개월 만에 100선

반도체·방산·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주가 늘면서 7월 제조업 기업심리가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수출기업 심리는 107.5까지 상승하고 내수기업도 기준선 100을 회복했지만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은 여전히 장기평균을 밑돌아 회복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5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장기평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CBSI는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합성한 지표다. 2003~2025년 장기평균을 100으로, 이를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체 지수를 끌어 올린 것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CBSI는 103.2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2022년 6월 107.1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부터 석 달 연속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신규수주가 제조업 CBSI 상승에 0.8p 기여했고 업황은 0.7p, 생산은 0.6p, 자금사정은 0.4p를 각각 보탬다. 반도체와 방산, 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가 관련 제조업체의 수주와 생산 개선으로 이어졌다.

수출기업 CBSI는 107.5로 1.1p 올라 2022년 6월의 직전 고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기업도 2.0p 상승한 100.0으로 2023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105.3으로 0.8p, 중소기업은 97.6으로 1.9p 올랐다. 중소기업 심리는 개선됐지만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체가 꼽은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응답 비중이 21.8%였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0.6%, 내수 부진이 16.4%로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CBSI는 제조업과 달리 95.2로 0.2p 하락했다. 자금사정 악화가 지수를 0.5p 끌어내렸다. 비제조업체의 경영 애로는 내수 부진이 1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8월 전산업 CBSI 전망은 96.5로 전월 조사보다 1.3p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 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1~4월 기준, KOSPI 100주권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투표방송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총화·당사 고객 데이터)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폐쇄형으로 설정시 중도에 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선출 등사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A+/A-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